

CGNTV MAGAZINE

Winter 2018_Vol.22

Christian Global Network Television

04384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로 59길 8 CGNTV T.02)796-9800 F.02)749-6638

www.cgntv.net



Contents

목차

드라마

2 본격러브액션드라마 <고고송>
4 <고고송> 인물소개
6 출연자 인터뷰 - 윤은혜, 지일주, 임동진, 윤희선, 강민휘

모바일

10 KNOCK 미니시트콤 <마미웨이>, <무리,수>

글로벌특집다큐멘터리

12 Influence 인플루언스 위대한 영향력

CGNTV 10대 뉴스

Special

14 그리스도 안에서 나눔과 회복의 콘텐츠
16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어 더 멀리 더 가까이

선교지의 아침

Mission

20 필리핀 김정철, 김금주 선교사
22 에필로그 - 예수향남교회 경감신 목사
23 후원안내



COVER STORY

CGNTV 본격러브액션드라마 <고고송> 에필로그 촬영 현장. 배우 윤은혜, 지일주 등 출연진 전원이 모여 드라마의 특별한 마지막 장면을 담았다.

CGNTV Magazine은

분기별로 발행되는 계간지입니다.

발행일 2018년 12월 30일(통권 제22호)

발행처 CGNTV(www.cgntv.net 02-796-9800)

주소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로 59길 8 CGNTV

발행인 이재훈

대표 이용경

편집인 함태경

기획 CGNTV 브랜드 커뮤니케이션팀

진행·편집 정원이, 어대준, 김 란, 추정현

글 조인애

사진 어대준, 추정현

디자인·인쇄 페이지원(02-757-3111)

본격러브액션드라마 **고고송** 더 많이 사랑한 사람들의 이야기

2019년 새해 CGNTV가 제작한 두 번째 드라마인 본격러브액션드라마 <고고송>이 방송된다. 사랑에 있어선 'GO!'를 외치는 사람들의 따뜻한 사랑 이야기를 담고 있다. 드라마 <장난스런 KISS>의 작가 고은님이 각본을 맡아 신뢰를 더 하는 <고고송>은 젊은 연인, 노년과 중년의 부부, 장애인 커플 등 다양한 사람들의 사랑 노래를 전한다. 드라마 <설렘주의보>, <커피프린스 1호점>의 주연 배우인 윤은혜와 드라마 <청춘시대>, <사랑의 온도> 등에서 연기력으로 주목받은 배우 지일주가 출연해 기대를 모은다. 탄탄한 스토리, 베테랑 작가와 배우들이 호흡을 맞춘 CGNTV의 힐링 드라마 <고고송>이 여전히 사랑이 두렵고 망설여지는 모든 이들을 찾아간다.



프로그램 정보

- 극본 : 고은님 / 연출 : 홍현정
- 출연 : 윤은혜, 지일주, 윤유선, 성기윤, 임동진, 장광 외
- 방송일자 : 2019년 상반기 방송 예정

기획의도

“왜 사냐고 묻거든, 사랑하려고 삽니다.
생명을 주려고 살아요. 단 한 사람에게라도.”

<고고송>은 우리 내면에 존재하는 최상의 것, 아낌없이 주는 사랑의 능력을 보여주고자 기획됐다. 사랑이 힘든 주인공 공선화를 통해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은 결국 많이 사랑하는 자에게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 선화를 둘러싼 주변인들의 소소하지만 따뜻한 러브스토리를 전한다. 옛 상처에 발목 잡혀 사랑하는데 한 발 더 나가지 못하는 이들에게 'GO!'를 말해주는 따뜻한 사랑의 노래가 바로 <고고송>이다.

시놉시스

여자 주인공 공선화, 삼십대 초반, 인천에서 나서 자랐다. 음악 한다고 서해 앞바다처럼 특하면 옆에 없는, 썰물 같은 아빠 때문에 애정결핍에 걸려버렸다. 그래서 늘 마음을 다 못 열었다. 하지만 본인은 누구보다 열심히 사랑하고 있다고 믿고 있다. 인천의 종합 복지관에서 누구보다 열정적이고 정 많은 복지사로 매일 남을 위해 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결혼을 불과 두 달 여 앞두고 또 뒷걸음질 치게 된다. 그러던 중, 다들 만류하는데도 열렬히 사랑하며 결혼하려는 다운증후군 커플과 주변 사람들을 보면서 다시 한 발 내딛게 되는데...

인물소개

공선화 (여, 32세)

“괜히 얽힌 사람 상처 주느니 혼자 사는 게 낫겠어”

6년 차 복지사. 이름처럼 맑고 깨끗한 이미지. 성격도 쫄한 데 없이 밝다. 하지만 뜻밖
에 욱하는 성질이 있고, 아빠의 잦은 부재 때문인지 애정결핍이 있다. 그래서 모두에게
사랑을 베풀지만 남자친구에게서만은 사랑을 받기만 하려는 경향이 있어 연애가 쉽지
않다. 이번엔 결혼까지 순조롭게 달려왔다 싶었는데, 불과 결혼을 두 달 남짓 앞두고
대판 싸우게 된다. 상냥한 얼굴 뒤에 숨겨뒀던 상처들이 대거 쏟아져 나온 탓이다. 하
지만 이리 치이고 저리 엮여지면서 점차 성숙해져 간다.



강원형 (남, 30세)

“같이 도시락 먹고 싶은 사람 얽만 생각해도 니밖에 없다”

퓨전한식당의 셰프. 부산 사나이. 복지관에 봉사하러 갔다가 수선화를 뒹운 공선화에게 첫
눈에 반한다. 부모님께 사랑 많이 받고 자란 원형은 선화의 투정을 곧 잘 받아줬지만 사랑
을 줘도 사랑 받을 줄 모르는 선화에게 점점 지쳐간다. 신혼집에 이삿짐을 넣던 날에도 헤
어지지는 말을 쉽게 내뱉는 선화에게 원형 또한 참지 못하고 헤어지는 것에 동의한다.



공철수 (남, 52세)

“사실은 선화 너 처음 만나고 만든 노래야”

기타리스트 겸 싱어송라이터. 선화의 부친. 집 나간 지 3년 만에 선화의 결혼
식을 위해 돌아왔다. 음악의 꿈을 이루기 위해 집을 비웠던 날들이 많았고, 가
족보다는 늘 자신이 먼저였다. 그러나 딸의 두 번째 파혼을 보게 되면서 살아
온 지난날들이 처음으로 후회스럽고, 선화에게 미안하다.

장미숙 (여, 51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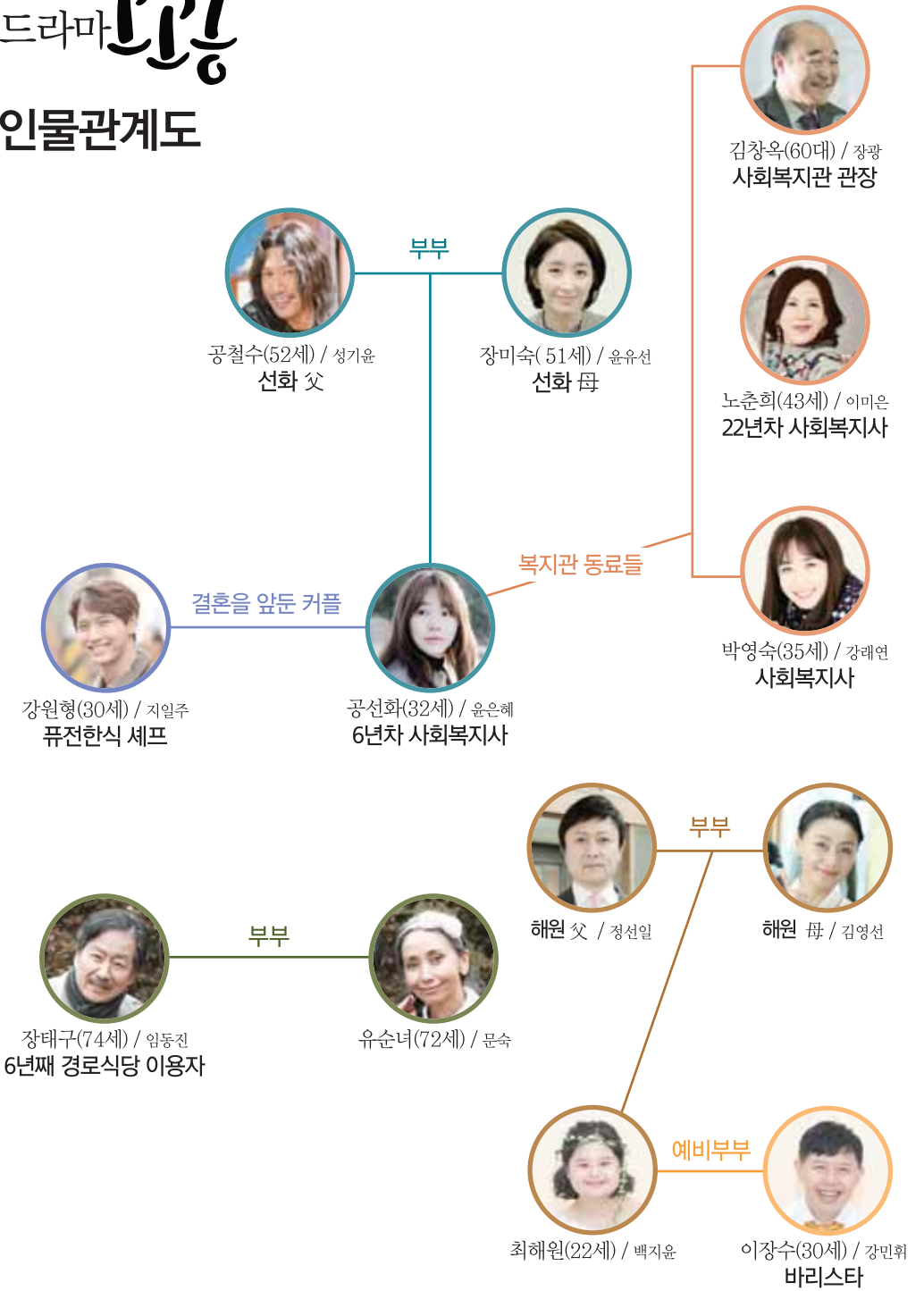
“그래도 다 덮고...또 잊고, 아빠도 엄마 많이 봐줬고, 엄마도 장난 아니었잖아.”

동화그림작가. 선화 모친. 40대 중반으로밖에 안 보인다. 선화랑 같이 다니면
정말 자매로 본다. 선화가 제발 엄마답게 좀 하고 다니라고 늘 타박한다. 고생
한 티 안 나고 밝고 씩씩하고 수위 높은 농담도 잘한다.



드라마 **고고송**

인물관계도



interview

“<고고송>, 기분 좋은 두근거림”



윤은혜(공선화 역)

CGNTV 본격러브액션드라마 <고고송>은 출연 배우들이 확정되면서 더욱 기대감을 높였다. 로맨틱 코미디 대표주자로 꼽히는 윤은혜와 유명 작품들을 통해 얼굴을 알려온 신예 배우 지일주가 주연을 맡았고, 오랜만에 모습을 비추는 명품 배우 임동진 목사, 느낌 있는 중년 배우 윤유선 등 친숙한 배우들도 다수 출연했다. 국내 다운중후군 배우 1호인 강민휘도 드라마에 새로움을 더했다. 눈길을 끄는 각 배우들은 <고고송> 출연 이유로, 모두 ‘따뜻함’과 그것을 풀어내는 ‘좋은 각본’을 꼽았다. 방송을 앞둔 배우들이 드라마 <고고송>에 대해 이야기했다.

“누군가는 살고 싶어지고, 누군가는 가족이 그리워지고, 누군가는 진짜 사랑을 찾게 되고, 또 누군가는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는 작은 기적들이 이 작품을 통해 일어날 소망해봅니다.”

<고고송>의 주인공 공선화를 연기한 윤은혜는 조금 다른 마음으로 방송을 기다리고 있다. 인기나 호응에 앞서, <고고송>이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작품이길 바라는 마음, 그녀만의 기도가 있다. 이는 대본으로 처음 접했던 <고고송>이 그녀에게도 특별한 작품이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오랜만에 가슴 한 구석이 뭉클했고, 기분 좋은 두근거림이 있었다”며 “많은 분들께 이 느낌을 전하고 싶어 출연을 결심했다”고 했다.

윤은혜가 연기한 공선화는 평소 맑고 밝은 사회복지사다. 다만 어릴 적 아버지에게 받은 상처로 사랑이 쉽지 않다. 강원형과의 결혼을 앞두고 여러 계기를 통해 가슴 속 작은 변화를 마주한다.

그녀는 “제 주변만 봐도 상처투성이인 가정이 많고, 그로 인해 사랑을 오해하는 경우들이 많다”며 “이를 회복케 하시고자 하는 주님의 마음이 작품을 통해 누군가에게 단비처럼 젖어들길 바란다”고 했다.

로코퀸이 보여주는 또 한 편의 사랑이야기, 더욱이 선교방송인 CGNTV의 드라마라는 점에서 윤은혜의 <고고송> 출연은 눈길을 끌고 있다. 특히 그녀는 자신의 장기인 로맨틱 코미디로 오랜만에 타방송 복귀작을 내놓으면서도 이 작품을 놓지 않았다.

그녀는 바쁜 일정 가운데, 공선화로 빨리 몰입할 수 있었던 이유로 좋은 선후배, 동료들의 도움을 꼽았다. 이에 전 출연진이 함께했던 마지막 에필로그 촬영이 무엇보다 뜻깊었다. 그녀는 작품의 주제와도 같았던 에필로그를 찍으며 “기쁨의 영이 충만했던, 어느 촬영보다 즐겁고 사랑 가득했던 시간이었다”고 전했다.

interview

“결국 중요한 것은 사랑”

지일주는 지난해부터 <사랑의 온도>(SBS/2017), <아르곤>(tvN/2017), <미스트리스>(OCN/2018) 등 다수의 인기 드라마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서글서글한 외모에 특유의 환한 미소, 개성 있는 연기로 시청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고고송>은 그의 첫 주연작으로, 그간 보여주었던 그의 사람 좋은 캐릭터에, 부산 사투리와 멜로 연기를 더했다.

<고고송>에서 그가 맡은 역할은 퓨전 한식당 셰프이자 부산 사나이인 ‘강원형’이다. 봉사하러 갔던 복지관에서 ‘공선화(윤은혜)’에게 첫눈에 반해 결혼까지 약속한 사이다. 선화의 투정도 곧잘 받아주는 밝고 넉넉한 성품. 하지만 결혼을 앞두고 자꾸 맘과 다른 말들을 내뱉는 선화 때문에 힘들다.

또래의 인물인 강원형을 연기하며 지일주는 누구보다 이야기에 깊이 공감했다. 그는 “대본이 참 좋았다. 에피소드마다 힘이 느껴졌고, 눈시울이 붉어지기도 했다”며 “많은 분들이 공감할 이야기”라고 했다.

특히 그는 강원형을 통해 스스로 사랑에 관해 깊이 생각해보는 계기도 됐다. 극 중, 결혼을 앞둔 원형과 선화가 갈등하며 부딪히는 모습을 보며,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를 배려하고, 나를 내려놓고 다가가는 마음, 결국 사랑이 중요한 것 같다”고 전했다.

이에 그는 결혼을 앞둔 커플 혹은 사랑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이들에게 이 작품을 적극 추천했다. 많은 이들이 <고고송>을 통해 사소한 실수로 사랑하는 사람을 놓치는 일이 없기를 바랐다.

지일주는 마지막 회차 촬영의 매서웠던 바닷바람이 지금도 생생하지만, “CGNTV 스태프, 좋은 동료 배우들과 함께했던 작업 전반이 행복하고 즐거웠다”고 전했다. 그중 원형과 선화의 카페 데이트 촬영은 가장 잊지 못할 장면이다. 따뜻하고 알콩달콩한 풍경. 배우 지일주가 함께하는 따뜻한 사랑이, 다가올 새해에 선물처럼 방송된다.



지일주(강원형 역)

interview

“누구나 봐야 할 선한 드라마”

임동진(장태구 역)



배우 임동진 목사가 노인 '장태구' 역으로 <고고송>에 출연했다. <징비록>(KBS1/2015) 이후 드라마 출연은 오랜만이다. 그가 맡은 장태구는 치매 아내를 요양원에 보낸 뒤, 오랫동안 홀로 지낸 괴팍한 노인. 복지관 독거노인 요리 강좌에 참여한 인물이다. 비중이 크진 않지만, 오랜만에 임 목사의 관록 있는 연기를 보게 됐다. 목사 은퇴 후, 극단 '예맥' 대표로, 여전히 무대와 TV를 오가며 활동 중인 임 목사는 “작품이 좋아 출연을 결정했다”고 전했다. “갈등구조가 많은 시대에 상대를 받아들이려 애쓰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름답게 그려져 좋았다”고 했다. 그는 “악역에도 박수를 치는 시대에 이런 선한 드라마가 필요하다”며, “<고고송>은 남녀노소 누구나 봐야 할 드라마”라고 추천했다.

“열정으로 채운 드라마”

윤유선(장미숙 역)



배우 윤유선이 주인공 선화의 친구 같은 엄마 장미숙을 연기했다. 사랑이 어려운 딸에게 또 다른 답이 되는 인물. 윤유선은 “탄탄한 대본이 전하는 따뜻한 스토리가 좋아 출연을 결심했다”고 전했다. “CGNTV의 도전이라는 점도 반가웠다”고 했다. 그녀는 CGNTV의 최장수 토크 프로그램 <히늘빛향기>의 진행자로, 누구보다 오랫동안 CGNTV와 함께 해온 출연자다. 오랜 배우 경력의 그녀는 CGNTV 연작드라마 <고고송>에 참여하며 “열정으로 채운 드라마 같다”고 소감을 전했다. 제작진, 배우들 모두 자기 분야에서 부족함이 없었다고. 그녀는 “<고고송>은 누가 봐도 좋은 드라마지만, 사랑에 상처가 있는 분들에게 더욱 권한다”고 전했다.

“작품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강민휘(이장수 역)



<고고송>에는 사랑에는 그저 '고' 하는, 직진 커플이 있다. 주인공 선화에게 큰 자극을 주는 인물들. 다운중후군 커플인 '이장수', '최해원'이다. 배우 강민휘는 극 중 최해원의 멋진 오빠, 바리스타를 꿈꾸는 청년 이장수를 연기했다. 최근 바리스타 과정을 공부하기도 했던 강민휘는 이장수 캐릭터가 보다 친근했다. 그의 순애보도 좋았다. 2005년 영화 <사랑해, 말순씨>로 데뷔한 강민휘는 국내 다운중후군 배우 1호다. 2018년 평창 동계패럴림픽 성화봉송 주자였고, 제9회 대한민국장애인 문화예술상 대중예술 부문 문화체육관광부 표창을 수상한 바 있다. 극 중 최해원 역의 백지운 배우와 “난생 처음 결혼식 장면도 찍으며 재미있게 촬영했다”는 그는 “용감한 이장수를 연기하며 촬영 내내 큰 힘을 얻었다”고 전했다.



세상에서 가장 순한 3분 영상을 만나보세요!

SOON



페이스북, 유튜브를 통해 만났던 모바일 콘텐츠를
CGNTV 웹사이트 www.cgntv.net 에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SOON 영상 시청방법

1 CGNTV 웹사이트 접속



2 SOON 로고 터치



KNOCK 단편미니시트콤 〈마미웨이〉&〈무리,수〉

마음을 두드리는 짧은 영상으로 모바일과 웹에서 젊은 세대들을 일으키고 있는 KNOCK에서 10대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2편의 미니시트콤을 공개했다. 과거 우리는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 한 번쯤은 교회에 갔던 기억을 간직하고 있다. 하지만 요즘은 활발히 전도하는 모습을 찾기 쉽지 않다. 수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시도했지만, 왜 크리스천들은 여전히 전도를 어렵게 느낄까? 그 고민의 해답을 찾아 친구와 가족 전도 도전기를 소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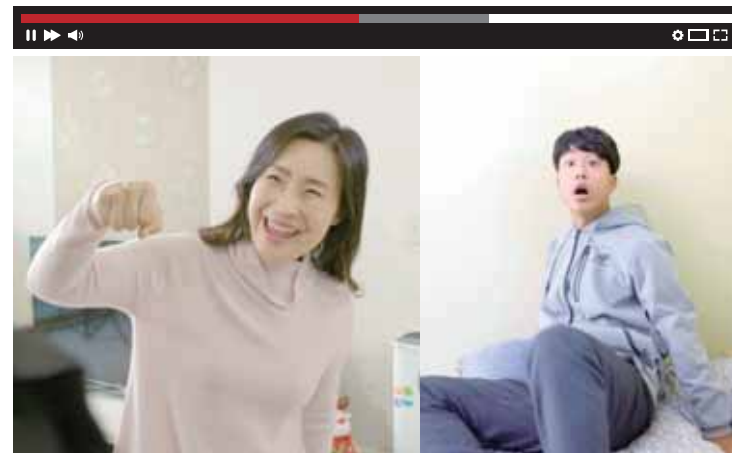
■ KNOCK 영상보기 : 페이스북 KNOCK(노크) 페이지, CGNTV 홈페이지(SOON 페이지), 유튜브 KNOCK(노크) 채널



핵인싸 엄마의 전도 프로젝트

평소 아들 승호와 함께 교회에 꼭 가겠다는 마음을 품고 있던 엄마 미숙. 하지만 전형적인 10대 사춘기인 아들 승호는 교회에 함께 가자는 미숙의 제안을 언제나 일관성 있게 거절한다. 미숙은 10대들의 마음을 아는 방법을 찾던 중 신조어를 접하게 되고, 각종 신조어를 마스터하게 된다. 자신이 숙지한 모든 신조어를 활용해 집안 곳곳 승호의 손길이 닿는 곳에 전도 서프라이즈를 계획한 미숙! 과연 아들 승호는 교회에 함께 갈 수 있을까?

※ 핵인싸(핵+인사이다: 무리와 아주 잘 지내는 사람)



공감 댓글

- 이렇게 전도하는 것임 ㅋㅋㅋ(김*화)
- 엄마가 갑자기 이러면... 진짜ㅋㅋㅋㅋ (이*희)
- 천국 가서 영생 ㄱㄱ 와썹뻘 ㅋㅋㅋ 레알 빵 터짐(김*사)
- 진짜 웃기네 ㅋㅋㅋㅋ (김*지)



네 사람이 펼치는 교회 전도 프로젝트

매년 수련회에 참석해 은혜받고 돌아오는 '고수' 그렇지만 항상 유통기한은 짧았다. 하지만 올해는 뭔가 달라도 달랐는지 고수는 '절친' 들에게 전도를 시작한다. 순순히 교회를 따라갈 리 없는 장난계의 대부 '지수', 눈치밥으로 살찌운 마른 비만 '광수', 조희수 대박 유튜버를 꿈꾸는 '영수'에게 빅딜을 제시하고, 친구들은 쿨! 을 외친다. 서로에게 만만치 않은 조건을 건 네 친구 중 과연 어느 쪽이 미소를 짓게 될까? 과연 고수는 최후의 승자가 될 수 있을까?



공감 댓글

- 너무 재미있어요ㅋㅋㅋ 요즘 청소년들 눈높이에 딱 맞는 내용이라 더 공감될 것 같아요! 학생들이랑 같이 봐야겠네요. ㅎㅎ(임*은)
-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봤네요 ㅋㅋㅋ 영상도 자막도 정말 재미있어요. 배우 분들 연기도 잘하시고, 다음 편도 기대됩니다. (유*현)
- 요즘 아이들의 삶을 실감나게 그린 게 와 닿았고 특히 전도에 대한 나름의 노력이 기특하게 느껴졌습니다. 내내 흐뭇하게 잘 봤습니다. (N*y)



방송일시 : 2019년 1월 10일(목), 11일(금) 오전 9시 30분

Influence

인플루언스 위대한 영향력

'커쇼', '힐만' 등으로 이어진 스포츠 선교단체 FCA 필드 사역 조명

LA 다저스 홈경기. 경기가 끝난 후, 너댓 명의 선수들이 꽤 많이 남아있는 관중들 앞에서 자신의 간증을 나눈다. 관중들의 질문도 받으며 그들은 관중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한다. 매년 진행되는 LA 다저스 '크리스천의 날' 풍경이다. 선수들 중에는 이름이 곧 브랜드가 되는, 현역 최고의 선발투수 '클레이튼 커쇼(LA 다저스 투수)' 도 있다.

올해 한국시리즈는 "받아야 할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 큰 축복을 받았다"는 수상 소감으로 마무리됐다. 우승팀 SK 와이번스 '트레이 힐만' 감독의 말이다. 그는 올해 부모님의 건강 문제로, 감독직을 사임하고 본국으로 돌아갔지만, 그가 보여준 그간의 리더십은 경기 운용 능력 그 이상의 것이었다.



▲ 클레이튼 커쇼 인터뷰

크리스천 스포츠맨으로 남다른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는 두 사람. 그들의 행보에는 미국 스포츠 선교단체 FCA(Fellowship of Christian Athletes)의 도움이 컸다. 1954년 창립된 FCA는 500여 개의 캠프와 2만여 개의 성경공부 모임 등을 통해 많은 운동선수 및 관계자들의 필드 사역을 돕고 있다. 한국에서는 지난 2017년 사역을 시작했다.

이영표, 브리검, 린드블럼, 윌슨 등

국내의 스포츠 스타들의 신앙고백

2019년 1월 방송 예정인 CGNTV 글로벌특집다큐 <인플루언스 위대한 영향력>(이하 '인플루언스')는 FCA 사역을 중심으로 이 시대 선교의 의미와 돌파구를 알아본다. 커쇼와 힐만 감독을 비롯해 넥센 히어로즈의 투수인 제이크 브리검, 두산 베어스 투수인 조쉬 린드블럼, LG 트윈스 투수인 타이러 윌슨 등 크리스천 운동선수로 사는 그들의 진솔한 신앙고백을 담았다.

커쇼는 다큐멘터리 인터뷰를 통해 "크리스천의 영향력은, 예수님께서 그러셨듯, '행동'에서 비롯된다"며 "경기나 연습 때는 물론 동료들을 대할 때도 최선을 다한다"고 했다. 또 "훈련은 할 수 있어도 능력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며 "그것을 통해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싶다"고 전했다. 트레이 힐만 감독은 "나에게 야구 감독은 섬기는 일"이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장 쉬운 방법은 섬김"이라고 했다. 또한 겸손의 리더십을 강조하며 "감독과 코치들은 모든 선수들이 사랑과 소속감을 원하고, 중요한 일을 해내고 싶어 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이영표 해설위원의 사역 모습



▲ 제이크 브리검 FCA 활동 모습

스포츠 선교를 통해 짚어보는 2019년 선교적 해법

<인플루언스>는 이들과 함께 한국의 대표적인 크리스천 스포츠 스타 이영표 해설위원의 활동을 조명한다. 이밖에도 <인플루언스>는 미국을 비롯해 한국, 일본, 태국, 라오스 등의 스포츠를 매개로 한 역동적인 선교 현장을 통해 선한 영향력이 어떻게 세상에 전파되는지 보고, 차세대 선교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과 돌파구를 제시한다.

2018 CGNTV 10대 뉴스

그리스도 안에서 나눔과 회복의 콘텐츠

1 CGNTV 콘텐츠, 국내뿐 아니라 국제무대에서도 작품성 인정받아



다큐영화 <서서평, 천천히 평온하게>



KNOCK 미니휴먼다큐 <수원역 브이로그>

2017년 4월 전국 극장에서 개봉했던 다큐영화 <서서평, 천천히 평온하게>가 지난 5월 국제기독교영화제(ICFF) 최우수상, 지난 7월 ICVM(International Christian Visual Media) 크라운어워즈 해외영화부문 은상에 이어, 9월 유럽기독교영화제(CEVMA)에서 고예산(5만 유로 이상) 다큐/다큐드라마 부문 1등에 올랐다. 동일한 영화제에서 단막드라마 <다시 봄>이 고예산(5만 유로 이상) 드라마 부문 2등에 올라 한국적인 요소들로 해외 관객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또 KNOCK 미니휴먼다큐 <수원역 브이로그>가 12월 열린 한국기독교연대상 나눔기부 부문에서 우수상을, 특집다큐멘터리 <독일 통일, 기도에서 기적으로>가 기독교화 부문 우수상을 수상하며 작품성을 인정받았다.

2 신규 콘텐츠 <한국순례기>, <예수님의 온기 36.5도>, <나침반 플러스>

개국 13주년을 맞은 CGNTV는 올 한해 그리스도 안에서 나눔과 회복의 가치를 담은 다양한 콘텐츠를 선보이며 시청자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갔다. 지난 4월 첫 방송된 <나침반 플러스>는 가정, 기독교 세계관, 차세대를 주제로 신개념 에듀톡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시청자들의 공감을 샀다. 6월부터 방송된 <한국순례기>는 열두 편에 걸쳐 한국교회 첫 믿음의 사람들의 흔적을 아름다운 풍경과 함께 소개해 시청자들의 큰 사랑을 받았다. 또 지난 10월부터 방영된 <예수님의 온기 36.5도>는 노랑진, 흥대, 남대문 등에서 만난 평범한 사람들의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통해 깊은 감동과 울림을 전했다.



<나침반 플러스> 시즌1 '사랑'



<한국순례기>

3 본격러브액션드라마 <고고송>, KNOCK 미니시트콤



본격러브액션드라마 <고고송>

지난 12월 성탄특집으로 방영된 특집단막드라마 <다시 봄>에 이어, 2018년 한 해 동안 제작한 연작드라마 <고고송>이 2019년 새해 시청자들을 찾아간다. 특히, 대중상 영화제 시나리오상을 수상했던 고은님 작가와 배우 윤은혜, 지일주 등이 출연해 대중에게 더욱 친숙하게 다가간다. <고고송>은 주인공인 사회복지사 공선화가 일하는 복지관 안에서 일어나는 장애인, 시니어들의 사랑을 담은 내용으로, 사랑의 힘을 불신하는 세상에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전한다. 또 모바일에서는 차세대 맞춤 미니시트콤 2편을 통해 요즘 청소년들의 삶을 실감나게 그려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4 시청자 참여로 이루어지는 CGNTV 공모전



시청수기공모전, 노커스 영상공모전, 영화기획안 공모전

CGNTV 프로그램 시청을 통해 느낀 감사와 회복의 이야기를 공모하는 <제2회 시청수기 공모전> 시상식이 지난 4월 CGNTV 본사에서 진행됐다. 대상을 수상한 동서비전교회 김일연 목사가 특집단막드라마 <다시 봄>의 은혜를 나눴다. 올해로 4회째 맞이하는 <노커스 영상공모전>은 KNOCK 퍼즈 시리즈를 주제로 9월 한 달간 진행돼 영상선교에 비전을 가진 이들의 많은 참여가 있었다. 또 <제1회 기발하고 독실한 CGNTV 영화기획안 공모전>도 진행됐다.

5 세상에서 가장 순한 3분 영상 SOON 페이지 오픈



오늘 하루를 위한 3분 메시지, 클립 영상 등 모바일 맞춤 콘텐츠로 날마다 영적 공급을 해주는 페이지가 있다. 지난 6월 SOON 영상을 언제든 찾아볼 수 있는 페이지를 CGNTV 웹사이트 내에 오픈했다. 이에 페이스북과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만 볼 수 있었던 모바일 콘텐츠를 한 눈에 볼 수 있게 됐다.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콘텐츠로 넘쳐나는 세상 속에서 가장 순한 영상을 매일 공급하는 SOON은 복음을 처음 접하는 이들이나 신앙의 성숙을 원하는 그리스도인 모두에게 적극 추천한다.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어 더 멀리 더 가까이

6 미디어아카데미, 고향교회 섬김으로 더 멀리

2016년 한국교회 나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시작된 미디어아카데미와 고향교회 섬김은 올해로 3회째를 맞이했다. 미디어아카데미는 국내(강릉중앙교회)뿐 아니라 태국과 대만으로 지경을 넓혀 영상 제작에 필요한 미디어 노하우를 나눴다. 태국 미디어아카데미에 참여했던 한 참석자는 “한국에서 오신 분들에게 정말 감사하고, 이제는 영상 만드는 것이 전혀 두렵지 않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한 고향교회 섬김은 70여 명의 직원들이 충주전원교회를 찾아 농사일을 돕고 마을잔치를 열어 어르신들의 마음을 여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



7 지역 섬김으로 더 가까이



CGNTV는 서빙고동주민센터와 함께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모델을 찾아 한강중학교 미디어워크숍, 서빙고동 사진전을 개최했다. 한강중학교 미디어워크숍은 지난 4월 한강중학교 방송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영상편집과 촬영 기술을 나누며 학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서빙고동 사진전은 11월 복사평 광장을 시작으로, 서빙고동주민센터, 카페 마다가스카르, 서빙고 온누리교회 아트비전 갤러리에 30여 점의 사진을 전시하며 지역 주민들의 큰 관심을 끌었다. 특히, 신미식 사진작가의 재능기부로 진행된 이번 사진전은 무심코 지나쳤던 서빙고동 거리의 모습과 서빙고동의 추억을 간직한 어르신들을 사진에 담아 지역 콘텐츠 활성화에 힘을 더했다.

8 중문대 CGNTV 개국 10주년

중화권 미디어선교에 힘써 온 중문대 CGNTV가 지난 6월 개국 10주년을 맞았다. 타이베이에 설립된 중문대 CGNTV는 홍콩 창세TV, 대만 신연광 TV 등과 프로그램을 교류하며 24시간 현지화 맞춤 방송을 하고 있다. 또 성광신학교와 연계해 신학생, 목회자 신학강좌 및 가정교회 사역을 위한 제자 양육 프로그램도 선보이고 있다. 이사장인 장정화 목사는 “중문대 CGNTV 10년의 역사는 은혜의 산물”이라며 “대만만을 위한 방송이 아닌 전 세계 중화권을 위한 방송이 되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10 선교헌신자 파견

CGNTV 개국 13주년을 맞아 4기 선교헌신자가 선발됐다. CGNTV는 선교헌신자를 선발해 훈련을 거쳐 미디어 선교가 필요한 곳에 파송한다. 태국지사로 파송될 영상제작팀 고요한 부팀장은 “선교지에 필요한 콘텐츠를 제작하는데 도움이 되고 싶다”며 소감을 밝혔다. 지난 10월 일본지사로 파송된 송출팀 박재원 형제는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채워서 쓰시리라 믿는다”고 마음을 전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신 달란트가 선교지에서 값지게 사용되길 소망한다.



9 후원자의 손길로 운영되는 CGNTV



CGNTV 정기후원 행사가 ‘한 영혼을 섬기는 CGNTV의 5만 후원자가 되어 주세요’를 주제로 지난 10월 7일 온누리교회의 국내 11개 캠퍼스에서 진행됐다. 정기후원행사 결과, 후원자가 3만 3천여 명으로 증가했다. 정기후원자의 귀한 손길은 교회와 가정, 사회를 살릴 수 있는 양질의 콘텐츠를 제작하는데 쓰일 예정이다. 또 최경주 프로그래머 재능기부로 참여한 후원골프대회와 드림온콘서트 및 은혜샘물교회 후원 행사가 이어져 후원자들과 함께 미디어선교의 중요성과 CGNTV의 비전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서빙고동 거리

신미석 사진작가, 여행수필가
세계 각국을 여행하며 프레임 안에 사람과 삶, 다채로운 풍경을 담아낸다.
저서 <머문자라>, <사진가는 길에서 사랑을 배운다>, <전국의 땅, 에티오피아>의 다수



“한국말을 들으니 살 것 같았습니다. 한국 사람이라고는 단 한 명도 없는 이곳에서 모국어 설교를 듣는 것만으로도 은혜였습니다.” 필리핀 민도르섬에서 사역하는 김정철, 김금주 선교사는 10여 년 전, 뜻밖에 CGNTV 안테나를 설치 받았다. 민도르섬에 정착해 산지 부족 사역을 막 시작했을 즈음이었다. 그들의 소식을 접한 김정철 선교사의 고모가 직접 신청하고 후원한 안테나였다. 편치 않은 교통 상황 탓에 설치하는데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한 필리핀 선교사의 도움으로, 그들은 신청 6개월 만에 CGNTV를 보게 됐다. 그들에게 CGNTV는 마치 가을에 내리는 단비 같았다.

오지로 찾아온 오랜 위로

필리핀 김정철, 김금주 선교사

뉴욕에서 산지 부족 속으로

김정철 선교사는 미국 풀러신학교에서 공부하던 1998년, 필리핀 현지 목회자들과 산지 부족들을 방문했던 것을 계기로, 필리핀 선교의 길을 걷게 됐다. 그는 어느 미전도 부족들보다 복음을 잘 받아들이는 그들의 모습에 놀랐다. 추수 때가 된 황금 벼 앞에 낮을 켜 채 서 있는 꿈을 꾸면서 더욱 그들을 품게 됐다. 그는 1999년 뉴욕에서 목회를 시작하면서, 1년에 3번, 3주씩, 10여 년간, 산지 부족들을 찾아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했다. 그리고 2008년 10월 필리핀 민도르섬에 완전히 정착했다. 복음을 전하는



동안, 김 선교사 부부는 여전히 많은 복음의 불모지를 피부로 접했다. 전도에 힘쓰며, 교회를 개척하고, 초등학교, 고등학교, 목회자 신학교, 병원, 수련회관 등을 세워갔다. 특히 현지 목회자들에게 마음이 갔다. 교육의 혜택이 적은 그들을 위해 섬과 섬을 찾아다니며 세미나를 개최하고 '기도와 말씀'을 강조했다. 크고 작은 변화가 눈에 보였다. 입학할 때와 확연히 달라진 모습으로 목회자 신학교를 졸업하는 제자들이 많았다. 교회를 세워가며 복음을 전하는 그들의 성장은 무엇보다 큰 보람이고 기쁨이었다.

10년 오지 사역의 동반자, CGNTV

하지만 언어와 문화가 전혀 다른 사람들과 오지에서 보낸 지난 10여 년이 쉽지 않은 않았다. 외롭기도 하고 영적 공급도 필요했다. 뜻밖에 설치 받은 CGNTV는 그들에게 큰 힘이 되었다. “선교사는 감독해줄 사람이 없습니다. 스스로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지만, 서서히 메달라가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CGNTV를 통한 영적 충족이 있었고, 각 오와 다짐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김 선교사는 다양한 설교를 들으며 지금도 예배의 그리움을 채우고 있다. 모국에 있을 때보다 도리어 더 풍성함을 누리는 느낌이다. 사모인 김금주 선교사는 CGNTV 프로그램들에 대해 해박하여, 바깥 활동이 많은 김 선교사에게 좋은 프로그램을 소개해주기도 한다.

후원 행사를 찾은 두 선교사

김 선교사 부부는 최근 한국을 방문해 CGNTV 후원 행사에 출연했다. 은혜의 간증을 나누며 CGNTV 사역의 살아있는 가치를 전했다. 10여 년 전, CGNTV 설치를 위해 마닐라에서 15시간을 마다치 않고 달려와 준 또 다른 선교사와의 인연도 이 자리에 참석한 이유였다. 그들은 “선교사들은 물론이고, CGNTV를 통해 많은 영혼이 살아나는 계기가 되고 있다”고 전했다. 오지에서 사역 중인 김 선교사 부부는 “우리가 이곳에 있다가 사고사를 당하면 누가 알까?”라는 쓴 농담을 종종 나눌 때가 있었다. 그러나 그들을 찾아 출연 제의를 해준 CGNTV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기쁨이 있었다”고 전했다.



섭리에 맡겨진 힘

신학대학에 입학한 후, 학교에서 저의 자리를 대략 알게 되었습니다. 동기 중에는 중고교시절 깊은 은혜를 입고, 오직 신학대학을 위해 공부해 온 이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경우는 전기 대학 시험에 낙방한 후, 재수할 만한 여지를 찾기 어려웠으므로 아무 곳이나 들어갈 학교를 찾던 중 출석하던 교회 담임목사님의 권고로 진학하게 된 처지였습니다. 신학대학 특유의 문화에 적응하기조차 쉽지 않았던 터라, 목회자가 된다는 것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결실을 살피던 중 신문기자가 되려고 대학원에 진학하여 열정을 불태우던 저는 대전덕 신부님의 강연 덕에 다시 신학대학원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30년 이상 지난 지금, 순혈주의 동기들이나, 다소 열등했던 저 같은 자들이나 하나님 앞에서 동등한 은혜로 목회하는 것은 매한가지인 것이 신기하기만 합니다. 섭리는 우리들의 자격을 넘어 우리를 고르게 이끌어 갑니다.

CGNTV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구성도 신학대학 입학생들의 구성과 유사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 각 사람을 구성하고 있는 자격의 요소들보다 비교할 수 없이 큼니다. 그 섭리를 따르는 이들의 순종은 순수선교방송을 고수하려는 열

망으로 모여 막대한 힘을 시청자들에게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돈과 규모와 속된 영향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 맡겨지고자 하는 메시지를 끝없이 주기 때문에 CGNTV에 대한 존경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송 관계자들이 단지 상대적 열악함을 견뎌주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단지 선교적 희생의 몫을 자발적으로 감수하시기 때문도 아닙니다. 섭리에 맡겨지는 힘 안에 머무르는 것이 가장 큰 힘인 것을 알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오늘의 우리가 과거로 인해 빛어진 것 같지만, 실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적극 수동성의 신비 가운데서 움직여지고 있다는 사실로 인해 경외감을 느낍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대로 힘껏 동역하는 기쁨을 누리고 싶습니다.

예수향남교회 정갑신 목사



후원안내

* 후원신청방법

1. 전화신청 02-796-2243
2. 인터넷 신청 www.cgntv.net 우측상단 후원하기 클릭
3. 모바일 신청 m.cgntv.net 후원하기 클릭

* 후원방식

1. 정기후원신청
 - 통장자동이체 • 신용카드 정기후원
2. 일시후원신청
 - 계좌이체 or 무통장입금 / 신용카드 / 휴대폰결제 / 실시간 계좌이체
 - ARS 후원 060-700-1660 (한통화 5천원)

* 후원계좌

- 예금주 : (재)은누리선교재단
- KEB하나은행 573-910002-67804
 - 우리은행 1005-801-017847
 - 국민은행 225101-04-006695
 - 농협 301-0072-3639-01

* 해외지사 후원

- KEB하나은행 573-910007-48104
- 예금주 : (재)은누리선교재단

CGNTV 실행위원회 배중수(실행위원장), 김용기, 김종건, 김종성, 김희준, 이광형, 이인용, 장규환, 정운섭

CGNTV 운영위원회

정상건(운영위원장), 강경국, 강기석, 강상훈, 강신익, 고미애, 고현준, 곽승남, 구재영, 국정숙, 권득한, 김관근, 김관식, 김명세, 김명철A, 김명철B, 김석인, 김희준, 김선래, 김성균, 김성목, 김성진, 김수영, 김순영, 김신원, 김영길, 김오성, 김용성, 김원규, 김 인, 김인경, 김장렬, 김정훈, 김종수, 김종호, 김현중, 김형식, 김홍국, 나영욱, 남상욱, 문성준, 문애란, 문영기, 박상송, 박성호, 박영한, 박은정, 박이철, 박지수, 박찬구, 박찬규, 방찬중, 서명수, 서성렬, 서정호, 서춘희, 선우석, 성필호, 손제열, 손태용, 손한기, 송영태, 신수은, 신철우, 심광명, 심상달, 심희돈, 안대륜, 양유식, 양재수, 양주현, 오이식, 유병진, 유영섭, 유의준, 유이상, 윤석우, 윤영각, 윤원식, 윤유인, 윤진혁, 이경석, 이경호, 이관수, 이국주, 이남식, 이동엽, 이밖음, 이서정, 이석일, 이영희, 이용만, 이용성, 이은경, 이일표, 이일형, 이창환, 이철원, 이춘희, 이학일, 이희연, 임진욱, 임창빈, 장 광, 장순애, 장정심, 장상기, 장재민, 장진호, 조성현, 조영준, 조영진, 지성한, 채수삼, 최남용, 최도성, 최동환, 최정수, 최훈학, 하성기, 한상규, 한상준, 한창격, 한형식, 함일성, 홍혜실, 황광석, 황상운

CGNTV 미디어선교후원 어렵지않아요

CGNTV 사역에 후원으로 동참하실 분은
아래 핸드폰 그림에 성명, 연락처, 후원금액을
적으신 후 사진을 찍어 010-6555-2243 으로
보내주세요

< 후원문의 / 02-796-2243 >

2018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

2018년 올 한해에도 온 세상을 위한 복음의 통로 CGNTV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말정산을 위한 기부금영수증 발급 방법에 대해 안내해드립니다.

먼저, 후원금 납부(2018. 1. 1~ 2018. 12. 31) 하신 분들의 정확한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위해 개인정보를 확인해주세요.
(※CGNTV 후원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CGNTV 홈페이지 발급
www.cgntv.net

로그인 ▶ 나의 후원정보 ▶ 기부금영수증 출력하기 (2019년 1월 7일부터 가능) (또는 아이디 없이 로그인하여 기부금영수증 출력가능)

국세청홈텍스 발급
www.hometax.go.kr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정확히 등록된 후원자님은 2018년 1월 중순 이후 국세청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안내사항

- 기부금영수증은 본인명의로만 발급가능합니다.
- 본인을 포함한 기본공제대상자(연간 총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가족)의 기부금을 합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상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해 주세요.
▶ www.cgntv.net
- 기타 문의 : Tel : 02-796-2243 E-mail : dreamon@cgntv.net